

## 새로운 세기에는, 너희들의 행동과 얼굴에 천사체의 형태가 드러나야 한다.

오늘 밥다다는 신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 그의 자녀들을 보며 기쁘다. 너희들은 신 자신에 의해서 부양을 받으니 매우 운이 좋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자기들을 부양한다고 말하는 반면, 너희들 소수의 특별한 영혼들은 실질적으로 신에 의해 부양을 받고 있다. 신이 너희를 부양하기 위해 주는 것은 그의 슈리마트이다. 너희들은 신이 주는 이 슈리마트에 의해서 움직이고 부양된다. 너희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특별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경험하느냐? 너희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아느냐? 현재 너희 브라민 영혼들은 어차피 훌륭하다. 미래에도 역시, 너희들은 가장 고귀하며 위대한 영혼들이 된다. 동시대에도 너희들은 매우 훌륭하게 여겨져서, 너희의 실존하지 않는 우상 앞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우상 앞에 절을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떤 영혼들이 신인을 모방해서 옷을 차려 입으면, 만일 락쉬미나 나라얀 또는 쉬리 라마처럼 보이게 꾸미고 계속해서 그 신인의 역할을 하는 흥내를 내면, 비록 그 영혼들의 평소 인간 모습을 아는 이들도, 그들이 정말로 신인 영혼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형태도 역시 위대하다. 그러나 위대한 이름을 가진 영혼들도 또한 위대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위대함을 경험하느냐? 너희들은 그저 이 위대함에 대해서 알고만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느냐? 너희들은 단지 그것에 대해 알기만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드러난 형태로 경험하느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밥다다는 너희 모든 자녀들을 경험의 화신으로 만든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그저 듣기만 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에 관해서 알기만 하는 이들이 아니다. 너희 각자의 상태는 너희의 얼굴, 행동,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는 방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너희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보아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브라민의 방식인가? 브라민은 언제나 가득 찬 영혼을 의미한다: 모든 힘과 미덕으로 가득 찬 영혼이다. 너희들의 행동이 이와 같으냐? 비록 너희들은 평범하지만, 얼굴에는 너희가 알로킵(이 세상의 것이 아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들은 너희들의 눈길과 태도와 파동이 알로킵이라는 것을 경험하느냐? 너희들의 마지막 생에서도, 너희의 신성함과 위대함이 실존하지 않는 너희의 이미지를 통해서 경험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고귀하고 살아 있는 너희 영혼들 안에서도 지금 경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저 살아있지 않은 이미지들은 너희의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암릿 벨라부터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루 종일 체크하여라. 너희의 눈길이 알로킵인가? 너희 얼굴의 포즈는 끊임없이 명랑한가? 그것은 항상 안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때때로 변하느냐? 너희의 의식과 태도는 오직 요가를 하고 앉아 있을 때와 특별한 봉사를 할 때만 알로킵인가? 아니면 너희의 얼굴과 행동은 너희가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특별한 상태가 유지되느냐? 너희가 아주 바쁘게 일하거나, 어떤 격동을 겪고 있는 때에도, 모든 이가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알로킵이라고 여기느냐? 그러니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알로킵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여라. 너희가 평범한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도, 너희가 사랑이 많고 초연하다는 것을 너희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지를 체크하여라. 너희 앞에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영혼들이, 너희의 파동에서 그리고 너희가 말하고 모든 것을 하는 방식에서, 너희가 알로킵의 천사라는 것을 경험하느냐? 오늘은 합류의 날이다. 낡은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오고 있다! 따라서 너희들은 어떤 새로움을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너희들 속에서 기억하거나, 너희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창조를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를 생각해보아라. 창조를 위한 시간이 이미 얼마나 지났느냐?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고려해보면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 안에서 어떤 새로움을 볼 수 있어야 하느냐? 밥다다는 노력을 하고 날고 있는, 매우 훌륭한 노력가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21 세기에, 밥다다는 어떤 새로운 것을 보길 원한다. 너희들 모두가 아주 좋다. 너희들은 모두 특별하고 위대하다. 그러나 아버지를 드러내는 바탕은 너희의 천사같은 행동이 드러나고, 평범한 일을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는 너희의 방식이 드러나는데 있다. 밥다다는 상황이 그랬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 일이 그랬었다던가, 상황과 문제가 그랬었고, 그래서 너희가 평범하게 행동했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천사체 형태를 갖는다는 것은 너희가 의식하는 것의 화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즉 너희의 의식이 너희의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의 이해 수준이나 의식 수준까지만 되어서는 안되고, 너희의 형태까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어떤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너희

의 알로직 형태만이 보일 정도로 너희가 변모해야 한다.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변하느냐? 상황이 너희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왜 상황이 너희를 변화시켜야 하느냐? 너희들이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 말이 너희를 변화시킨다, 아니면 너희가 너희의 말을 변화시킨다? 무엇을 변화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무엇을 실질적인 삶의 표본이라 부르겠느냐? 보통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모습을 때와 상황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천사는 과거의 행동이나 평범한 방식을 초월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제 너희들의 주제는 "시간의 부름(The Call of Time)"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시간이 특별히 위대한 너희 영혼들이 천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부터 오직 너희의 알로직 형태만이 보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하냐? 선생들, 말해보아라! 이것이 가능하냐?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것이 가능하면, 아주 좋은 일이다. 언제 그것이 되겠느냐? 1년이 더 필요하냐? 2000년의 연말에 그렇게 되겠느냐? 1년이 더 필요하냐, 아니냐? 1년, 아니면 6개월이나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손을 들어보아라!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 손을 들지 않고 있다! 너희들의 슬로건이 무엇이나? 기억이 나느냐? "지금 아니면, 결코 못한다!" 이것이 누구의 슬로건이나? 이 슬로건은 브라민들의 것이냐, 신인들의 것이냐? 그것은 너희 브라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세기에, 밥다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알로직인 행동방식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것을 위해, 너희는 네 가지에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래된 것들이다. 바바는 단지 너희를 위해 그것들을 다시 복습해서 말하는 것이다.

- 1) 남들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수브 친타크)을 하는 좋은 소망을 비는 사람.
- 2) 자기 자신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수브 친탄)을 하는 사람
- 3) 항상 순수한 느낌을 갖는 사람 - 남이 바뀐다고, 너희의 느낌도 바뀌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남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순수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
- 4) 순수하고 고귀한 의식과 형태.

단순히 "수브(subh)"라는 이 말만을 기억해라 (수브는 순수하고 상서로운 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네 가지 모두가 이 말 안에 들어있다. "수브"라는 말을 너희의 의식 속에 간직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여러 번 들었다. 너희들은 또한 그것에 대해 남들에게 여러 번 말한다. 이제 그것을 너희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이 적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라. 밥다다는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이들이라는 것을 안다. 너희에게 오는 모든 이들은 너희 모두가 이런 육신의 형태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 대부분의 올해 차트를 보았다. 밥다다가 무엇을 보았느냐? 밥다다는 한 가지 큰 것을 보았다. 밥다다는 너희가 지우고 수용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지운다. 너희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 중 잘못된 것과 과거의 것은 모두 지워 버린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에 대해 하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이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그것을 지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마음의 그릇(plate)이라 부르든, 마음의 석판(slate)이라 부르든 또는 마음의 종이라고 부르든 간에, 너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는다. 왜 모든 것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의 수용하는 힘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다른 때에 무언가가 다시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밥다다가 말한 네 가지 말에 바쁘게 될 수가 없다. 너희들 마음의 그릇, 석판, 또는 종이가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완전하게 깨끗하지 않은데 너희가 거기에 쓰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깨끗하겠느냐? 예를 들어, 너희가 모든 미덕과 힘을 훈습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변함없고 완전한 퍼센티지가 되겠느냐? 이 힘들은 모든 것이 완전히 깨끗하고 선명할 때라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너희가 그것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석판의 대부분이 깨끗하고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몇 가지 일이나 행동, 몇 가지 낭비적인 상황, 그리고 낭비적인 행동이 아직도 너희 안에 미묘한 방식으로 들어있다. 그 다음 그것들이 어떤 때가 되면 육신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 제일 먼저 너희 자신을 체크해라.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한다. 남들을 체크해서는 안 된다. 남들을 체크하기는 아주 쉽지만, 자기 자신을 체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석판에 낭비적인 것과 과거의 것이 없이 완전히 깨끗하고 선명한지를 체크하여라. 이러한 것

들이 가장 미묘한 형태로 너희의 파동 안에 남을 것이다. 천사란 완전히 깨끗하고 선명한 사람을 의미한다. 수용하는 힘을 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수용하여라. 부정적인 것을 수용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을 뭔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수용해라. 그렇게 하면 새로운 세기에 새로움이 있을 것이다.

바바가 그밖에 무엇을 보았는지 너희에게 말해야겠느냐? 바바가 너희에게 말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미 충분히 들었느냐?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바바는 너희를 모두 파람담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밥다다가 이미 말했다. 사랑으로든(피아르) 또는 때려서든(마아르), 그는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때려서 데려가고, 너희 모든 자녀들은 사랑으로 그와 함께 데려갈 것이다. 지금도 밥다다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 위대한 영혼들 모두가 세상의 영혼들에게 너희의 천사의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자, 너희는 이것을 위한 준비가 되었느냐? 밥다다가 이미, 그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너희에게 여러 가지로 일러주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세계가 올 수 있겠느냐? 앗차, 그밖에 바바가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지 않느냐? 보아라, 밥다다는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바바가 그밖에 무엇을 보았느냐? 너희가 하는 변명에 대한 답을 찾을 때에야, 너희들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바바가 두 번째로 본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주의함이다. 바바는 또한 매우 왕족다운 형태의 부주의함을 보았다. 부주의함의 한 가지 표현은 "무엇이라도 된다! (모든 것이 좋다!)"이다. 어떤 육신의 존재도 다른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볼 수는 없다. 브라마 바바가 육체 안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렇게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아비약트 형태 안에서는, 원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신은 천 개의 눈과 십만 개의 눈, 그리고 십만 개의 귀가 있다고 기억된다! 따라서 지금 이때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애써도 -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평범한 방식이 아니라 왕족답게 숨기는데 - 그래도 무체인 분과 아비약트 브라마는 함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주의함의 한 가지 유형은 거친 형태이고,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세련되고 미묘한 형태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부주의함에 대해 너희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라도 된다! 모든 것이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겠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지내보자. 그것은 나중에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부주의한 생각들이다. 밥다다가 하고 싶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모두에게 얘기해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너희의 명예를 지켜준다. 그러나 너희들의 이러한 부주의함은 너희들이 집중된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주의함은 너희가 우등으로 합격하지 못하게 막는다. 너희들 자신이 "어떤 것이라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라도 괜찮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은 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바바가 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들었느냐? 이 부주의함이 너희가 변화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너희들 각자가 이것을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거야"라고 말한다. 밥다다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거라고?"라고 말한다. 밥다다가 오늘 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너희는 들었다.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힘으로! 너희들은 이것이 되어야 한다. 오늘, 바바가 약간 강경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러 저러한 일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자기 변명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단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너희들은 "상황이 이랬어요! 그 이유는 어차피 이랬어요! 나의 카르마 잔고가 그랬어요!"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동의하느냐? 선생들은 동의하느냐? 외국인들은 동의하느냐? 밥다다는 너희가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새로운 세기에 너희들은 나는 이것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 맞느냐? 너희들은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다다는 너희에게 1년을 더 준다. 그러면 그것은 쉽다,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라. 안락하다(아아람, aaram - aa, come, Rama, 라마여 오라)는 것은 첫째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던립 베개를 베고 안락하게 쉬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 대한 밥다다의 사랑이 더 크냐, 아니면 밥다다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더 크냐? 누가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느냐? 바바냐 아니면 너희냐? 판다바들은 사랑을 갖고 있느냐? "하 지"라고 말해라. 오늘 밥다다는 너희들에 대해 알아낼 것이다.

2017/01/01

마두반 천사체 밥다다 음 산티

1999/12/31

밥다다는 너희들 모두가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고 틀림없이 아버지 브라마와 대등하게 될 것을 믿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밥다다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브라마 바바는 너희 모두를 매우 사랑한다. 그는 "언제 나의 자녀들이 올까?"라고 궁금해하며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대등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바바는 브라마 바바와 그가 나눈 대화를 너희에게 들려줄 것이다. 1 월 18 일이 곧 다가온다.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가 쉬브 바바에게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하며, 너희 모든 자녀들이 날짜를 정하게 하라고 말했다. 자녀들이 날짜를 정하게 하라고! 아버지 쉬바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그분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밥다다는 자녀들이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밥다다는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 모두를 아주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날짜를 정할 것이냐?

새해에는 대등해지겠다는 결의를 가져라. 반드시 천사가 되겠다는 너희의 목표를 간직해라. 이제 너희의 모든 낡은 것들을 그만 두어라. 너희의 본래의 영원한 산스카라가 이제 나와야 한다. 걷거나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항상 "나는 아버지와 같은 천사이다. 나는 낡은 산스카라와 낡은 것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자각을 유지하여라. 이해하느냐? 이러한 변화의 생각은, 너희가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과 햇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생각, 이 씨앗에 너희의 자각이라는 물과 햇볕을 주어라. 밥다다에게 한 너희의 약속을 거둬 되풀이해서 새로이 해라.

모든 과업에 변화의 힘을 사용하는 곳곳의 모든 위대한 영혼들에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혼들에게, 앞으로 천사가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자신의 천사체 형태를 드러내겠다는 결의에 찬 믿음을 가진 브라민 영혼들에게, 항상 아버지 한 분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아버지와 대등하게 되는 이들에게, 밥다다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는 마하비르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 복:** 대단한 행운을 가지고 너희의 얼굴과 너희 행동을 통해서 행운의 선을 드러내라.

너희 자녀들은 영원한 아버지와 원래의 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영적인 생을 취했다. 행운의 공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자는 얼마나 행운이 많느냐! 이 높은 행운을 항상 너희 의식 속에 간직함으로써 한결같이 명랑하게 지내라. 실제로 너희의 얼굴과 행동으로 너희 자신과 남들이 너희들의 의식의 형태를 경험하게 해라. 행운의 반짝이는 선이 너희 이마 가운데서 빛나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고귀하고 복 많은 영혼이라 불릴 것이다.

**슬로건:** 요기 영혼은 내성적이고 빛과 힘의 형태를 계속 경험하는 자다.

### 특별한 1 월달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피타 슈리 브라마 바바가 완성되어 완전해진 1 월이 시작됩니다. 브라마의 자녀인 우리들 모두 이 달을 아비약트의 달, 타파샤의 달로 특별하게 축하합니다. 날마다 멀리 수업 후에 우리 모두 강력한 형태의 화산 같은 요가를 10 분씩 할 것이고 또 평화와 힘의 사카시를 물질과 모든 영혼들에게 주는 봉사도 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서, 매일 멀리 뒤에, 여러분의 타파샤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카르마 요기로 남아 있도록 도움이 될 한 가지 특별한 요점이 주어질 것입니다.

### 타파샤의 형상이 되어라.

타파스위는 끊임없이 사랑의 대양,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잠겨 있는 자다. 지식의 대양, 희열, 행복, 평화 속에 잠겨 있는 이는 타파샤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너희들은 모두 이 경험 속에 잠겨 있어라.

\*\*\* 음 산티 \*\*\*